

제약시장 7배 커졌는데... 일반약은 되레 '뒷걸음'

소비자 접근 쉽지만 제도·시장서 모두 외면
품목수도 10년간 968개 줄어 2023년 4873개
"복약지도·품목 늘려 방치에서 전환 나설 때"

국회, 일반의약품 활성화 포럼

국민 건강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일반의약품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제도는 멈춰고 시장은 외면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선택권조차 제한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일반의약품(OTC) 활성화 포럼'에서는 OTC 시장의 역할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전문약품의 일반약 전환·활성화 △표준제조기준(SMC) 확대 △약국 중심의 복약지도 강화 △OTC 세제 혜택 도입 등을 촉구했다.

발제를 맡은 이동한 건강소비자연대 부총재는 "일반의약품은 소비자에게 가장 가까운 의약품이지만 오히려 제도와 시장 모두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특히 2012년 이후 전문약품의 일반약 전환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반의약품 품목 수는 2013년 5841개에서 2023년 4873개로 줄었다. 전체 제약시장이 7배 넘게 성장한 반면 OTC 비중은 14.9%에서 12.9%로 감소한 것이다. 소비자 접근성이 제한되면서 선택권이 줄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토론에 참여한 이충우 숙명여대 교수는



5일 국회에서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

스카이데일리

"약국 중심의 일반의약품 복약지도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약 정보 제공해야 한다"며 "특히 디지털 플랫폼인 '굿팜'과 같은 정보 앱을 국민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대한약사회 약국 이사는 OTC 시장이 침체된 근본적 원인으로 "낮은 수

익성과 까다로운 허가 구조, 광고 제한 등의 규제가 제약사의 진입을 막고 있다"며 "OTC 전담 기구 신설과 규제 합리화 없이는 시장이 회복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장재원 유유제약 본부장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고품질 OTC 제품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광고 기회를 부여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설계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약제제처럼 성분 분석이 복합적인 의약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자영 의료소비자연대 교수는 "일반의약품은 단순한 판매 제품이 아니라 국민의 자가 건강관리 권리를 뒷받침하는 공공재"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약을 충분히 공급하고 동네약국을 기반으로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영수 이법진 건강소비자연대 공동대표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진통제와 소화제 외엔 살 수 있는 약이 거의 없다고 느낀다"며 "정보 비대칭 속에서 건강기능식품은 과장광고가 성행하고 정작 일반의약품은 판매·광고 모두에 족쇄가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의 좌장을 맡은 이의경 한국에

프디시규제과학회 회장(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일반의약품은 건강 불안이 커지는 시기에 국민에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복약지도, 정보 제공, 품목 확대가 연계되어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제는 방치가 아니라 전환 시점"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규제 완화가 아닌 합리적 규제 재설계, 수의 추구가 아닌 공공성과 시장성의 균형, 선택 제한이 아닌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계호,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구촌보건의복지 공동 주최로 열렸다. 대한약사회, 건강소비자연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하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독감 급증 면역력 비상... 환절기 방패 영양소는?

일교차가 커지고 건조한 바람이 부는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워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바이러스가 더 오래 생존하고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는 등의 이유에서다.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때는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해야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 5일 질병관리청 실시한 의뢰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3주 차(10월19~25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비율은 위례환자 1000명당 13.6명으로 1년 전(3.9명)의 3.5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유행성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될 때는 체온 유지,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 관리가 면역력 방어의 핵심이다.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가벼운 감기 증상도 쉽게 악화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D, 셀레늄, 아연 등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비타민A는 면역세포의 생성과 기능 유지를 돕는 필수 영양소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성인 남성 기준 900μg, 여성은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할 건 면역력
비타민 A·C·D, 셀레늄·아연 등

게티이미지뱅크

700μg의 일일 권장 섭취량을 제시하고 있다. △당근, 시금치 등 녹색채 채소 △고구마 △우유 △고추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기름에 볶거나 조리해 섭취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는 영양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루 100mg의 섭취를 권장한다.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 △완두콩 △콩류 △토마토 등에 많

이 들어 있으며 열이나 산소, 빛에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오랫동안 가열하거나 작게 자르는 조리법은 피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D는 체내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성분이다. 중국 저장대 연구팀이 수행한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D 보충은 독감 발병 위험을 약 22%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D는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햇볕을 쬐거나 △달걀 △버섯 △연어나 고

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 좋다. 셀레늄은 신진대사와 면역 반응 조절에 관여하는 미량 원소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 성인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60μg이며 상한선은 400μg이다. 과잉 섭취 시 △설사 △메스꺼움 △탈모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브라질너트 △마늘 △현미 △해산물 등에 다량 함유돼 있다. 아연은 호흡기 내 점막과 세포로 구성된 방어막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로 감기나 독감과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식약처 권고에 따르면 하루 아연 섭취 권장량은 남성 10mg, 여성 8mg이다. △굴 △새우 △유제품 등이 좋은 공급원이다. 환절기에는 누구나 일시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일상 속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고 자신의 체질을 잘 파악한다면 예방은 충분히 가능하다. 단순히 증상을 누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체 전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면역 관리의 핵심이다. 하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베를리디, B형간염 초기 치료부터 급여

7년 만에 건보급여 기준 확대
간경변·간이식·임산부 포함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용 기준 개정 고시에 따라 만성 B형간염(HBV) 치료제 베를리디정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지난 1일부터 확대됐다고 5일 밝혔다. 베를리디는 테노포비르의 표적화 몸속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설계됐다. 기존 테노포비르 디소포록실 푸마르산염(TDF) 대비 약 10분의 1 용량인 25mg만으로 간세포에 약효 성분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개발됐다. 혈장 내 테노포비르 농도를 89% 낮춰 전신 노출을 줄이고 TDF 대비 열등하지 않은 항바이러스 효과를 유지하며 장기 임상에서 TDF 대비 신장·골밀도 안전성 개선이 입증됐다. 허가 사항에 따르면 베를리디는 신장 장애 또는 간장애가 있는 경우도 용량 조절 없이 투여가 가능하고 만 6세 이

상·체중 25kg 이상 소아 환자부터 성인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1일 1회 경구 복용하면 된다. 이번 고시에 따라 베를리디는 비대상성 간경변 또는 간세포암을 동반한 HBV-DNA 양성 환자에서의 초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고 만성 B형간염 치료 도중 간이식을 받은 환자에도 별도 조건 없이 지속 투여할 수 있다. 만성 B형간염 재활성화 위험의 예방 목적으로 투여하거나 만성 B형간염 수직감염의 예방 목적으로 HBV-DNA 20만 IU/mL 이상 임산부에게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다양한 약제를 포함한 다양한 약제 내성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 또는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신기능 저하 또는 골다공증 동반 환자'로 제한됐던 급여 조건에서 크게 완화된 것이다. 이로써 베를리디는 초기 치료부터 비대상성 간경변·간이식·재활성화 예방, 임산부 내성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치료 단계를 포괄하는 테노포비르 제제가 됐다. 하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In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첨가, 인한서 플러스

온라인 전용: 브로멜라인, 레시틴 풍부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